

여수 석유화학단지 가동률 98.6%

산업단지공단, 울산은 85.8% ... 4월 산업단지 평균가동률 84.6%

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들의 평균 가동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4월 들어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98.6%에 달했다. 반면, 울산 단지는 85.8%로 평균 수준을 약간 넘는데 불과했다.

산업단지 가동률 비교(2002. 4)

단 지	여수	광양	대불(외)	아산	울산	반월	대불	창원	온산	남동	평균
가동률(%)	98.6	98.6	90.9	88.7	85.8	85.7	85.0	84.1	83.6	81.6	84.6

한국산업단지공단(이사장 이효진)이 조사한 여수, 울산, 온산, 대산과 반월, 구미 등 전국 25개 국가산업단지의 4월 공장 가동률은 84.6%로 집계됐다. 3월보다 0.6%, 2001년 4월보다는 1.6%p 상승하고 2000년 12월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국가산업단지 생산활동(2002. 4)

구 분	2002. 4	2002. 3	2001. 4	증 감	
				전월대비	전년동월
입주(개)	14,447	14,163	12,346	2.0	17.0
가동(개)	12,671	12,486	10,917	1.6	16.1
가동률(%)	84.6	84.0	83.0	0.6	1.6
생산(10억원)	15,977.5	15,647.3	14,964.0	2.1	6.8
수출(100만달러)	5,775	5,687	5,296	1.5	9.0
고용(명)	508,084	503,599	496,587	0.9	2.3

산업단지공단은 가동률 상승이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화학업종과 운송장비업종, 기계업종 등 국가산업단지 주력업종의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.

대부분의 산업단지 가동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체 생산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울산·온산단지 가동률은 86.3%로 3월보다 2.1% 상승했다.

국가산업단지 가동률 추이

